

영화 '인천상륙작전' 상영 기념 특별 사진전

'그 날, 인천. 승전의 불을 밝히다.'

6.25전쟁 발발 이후 후퇴를 거듭하며 수도를 부산으로 옮기는 등
우리군은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의 지휘 아래 전세를 역전시
켜 한반도에서 적을 몰아내고 전쟁을 단기간에 종결시킨다는 내용의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대원들이 팔미도 등대에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불을 밝힘
으로써 맥아더 장군의 크로마이트(Chromite)작전인 인천 상륙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15일 새벽, 약 75,000명의 병력으로 상륙 작전을 개시한 유엔군은 녹색 해안, 적색 해안, 청색 해
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함으로써 해안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서울 탈환을 위한 후속 작전을 전개하여 9월
28일 드디어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상륙 지역으로 곤란하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였
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러한 견해를 역으로 이용해 수도와 가까운 인천을 상륙
지점으로 하여 서울을 단기간에 탈환해야 한다는 결단으로 작전을 감행
했습니다. 결국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성공적인 작전으로 역사의 대만
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 기간 | 2016. 7. 28.(목) ~ 8. 10.(수)

전시 장소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영상관 로비



인천역 뒤에서 잡힌 포로들

인천역 뒤 해변가에서 붙잡힌 포로들이 연합군의 감시 아래 머리에 손을 얹고 행진하고 있다. 왼쪽 담배공장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상륙작전 당일의 '적색 해안'

5000분의 1에 불과한 확률을 이겨내고 성공한 상륙작전 당일 오후, '적색 해안(레드비치)' 해변가에 병참 지원을 위한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륙작전 당시 촬영한 항공사진

월미도, 북성동 부두, 인천항 '독' 등이 내려다보인다. 북한군 거점이었던 수도국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상륙정들은 일시에 부두로 돌진하고 있다.



북한군과 교전 중인 연합군 병사들

월미도 상륙 후, 병사들은 완강히 저항하는 북한군과 맞서 대치하였다. 북성동 월미도 입구에 쌓아놓은 엄폐물에 몸을 숨긴 채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찾은 '인천시 청사(廳舍)'

인천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끝낸 연합군이 1950년 9월 16일 마침내 인천시 시청을 되찾았다. 시 관계자와 국군, 연합군이 모여 '인천 탈환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상륙작전 지점 표지석

인천상륙작전의 상륙 지점은 세 곳이었다. 이름하여 녹색해안, 적색해안, 청색해안이라 했다. 월미도, 인천항, 인천 남동부 일대를 말한다. 사진은 녹색해안의 표지석이다.